

# 영암교육청, 역사 교육 활성화 위한 ‘영상 독후감 공모전’

역사 인식 확립 ·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신장

“또 다른 학습 기회 · 방향 제공하는 교육”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24일 시청각실에서 역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상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역사교육 활성화 영상 독후감 공모전은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시키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개최되었다.

또한,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현장 체험 학습 자체가 어려운 시기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역사 책 읽기로 슬기로운 코로나 시대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에 초등 5~6학년은 오월의 달리기(김해원, 푸른숲주니어), 사월의 노래(신현수,

시둔북), 내 이름은 이강산(신현수, 꿈초), 모르는 아이(장성자, 문학과 지성사) 중에서 도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등은 안중근(조정래, 문학동네), 청소년을 위한 백범일지(김구, 나남), 4.19 혁명과 소녀의 일기(이재영, 지식과 감성), 소년이 온다(한강, 창비) 중에서 책을 선택하여 읽고 토론 영상, 애니메이션, UCC 등 다양한 형태의 영상 독후감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모전에 참여한 시종중학교 김민성, 강혜리 학생은 “4.19 혁명과 소녀의 일기를 읽고 나서 그 시기의 학생, 시민들 덕분에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며 “자신의 목숨보다 후손들의 삶을 더 생각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본받겠다”고 하였다.

독천초 이나라 학생은 “내 이름은 이강산 책을 읽고 일제 강점기 시절 이름까지도 빼앗기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며 “어렵게 지켜낸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김성애 교육장은 “교과학습과 역사 현장 체험을 통해 바람직한 역사관을 확립하도록 돋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코로나 19로 역사 현장체험을 대신할 수 있는 동영상 공모전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학습의 기회와 방향을 제공하는 교육이다”며 “코로나 19로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을 다양한 형태의 학습으로 학력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2020. 역사교육 활성화 영상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2020. 7. 24.(금)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다.

한편 영암교육지원청은 관내 역사·진로 관련 체험처를 발굴하여 학교에 안내하

영암=조대호 기자

## 순천대 CAP+ 청년층 진로지도 프로그램 성료

순천고용센터와 협업하여 집단 상담 형식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가 지역 청년 및 재학생 등 16명을 대상으로 최근 4일간 청년 총진로지도 프로그램(CAP+ (Career Assistance Program Plus))을 운영하여 성공으로 마쳤다.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청년취

업준비생의 진로·직업 선택을 지원하고 취업서류 작성 및 면접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순천고용센터와 협업하여 집단 상담 형식으로 CAP+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관련 활동은 코로나 19로 대비하여 교육 전부터 사전 온라인진단과 철저한 방역 조치 및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했다.

CAP+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 (1일차) 진로와 자기 탐색 및 직업 경험 탐색 ▲ (2일 차) 의사결정과 기업탐색 및 취업 상식과 예의 익히기 ▲ (3일 차)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구직서류 준비 및 면접 준비 ▲ (4일 차) 실전 모의 면접 및 피드백 공유, 취업 성공 요소 분석의 과

정을 통해 취업을 위한 실무역량을 억혔다.

순천대 대학일자리센터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모의 면접과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나의 강점 찾기, 기업정보 탐색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순천대 대학일자리센터는 향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청년취업준비생들의 직업·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모의 면접 및 자기소개서 작성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대학교 양수향 대학일자리센터장(인재개발본부장 겸)은 “코로나19로 인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비대면 상담과 다양한 자격증 취득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전남교육청 “더 좋은 학교 만들기 박차”

작은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집중운영학교 지원 강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올해부터 작은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집중운영학교를 적극 지원해 저마다의 빛깔을 살리는 작은학교의 교육력 강화에 힘을 쏟는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모로 지정된 집중운영학교 18교(단위학교 운영 5교, 공동·연계 운영 13교)는 작은학교 프로그램을 연 30시간 이상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하며, 특화된 프로그램이 지속되도록 3년간 맞춤형 지원을 한다.

도교육청은 청천초(단위학교 운영) 청

김정환 기자

## ‘코로나 19 이기는 슬기로운 보성학생자치’

학교폭력예방과 소통 메시지 확산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백남근)은 23일부터 보성학생연합자치회가 중심이 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대면 활동이 힘든 상황에서도 보성 학생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이 잘 드러났다.

‘보성학생연합자치회와 함께하는 우리 어울림 챌린지’는 학교폭력예방과 소통의 메시지를 담아 각 학교에서 제작한 영상을 SNS와 보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등에 릴레이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급 학교의 첫 주자가 영상을 제작하여 소통채널과 보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면, 지명된

학교에서 이어가는 방식으로 의미와 소통을 동시에 접았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보성교육지원청은 연초부터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보성 학생자치연합회의 원활한 소통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덕분에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자치캠프, 정례회가 잠정연기되며 만남의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학생자치활동은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이번 챌린지 캠페인은 각급 학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생 주도적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의 발전,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표현 방식 공유로 학교폭력예방 문화의 다양성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보성=김덕순 기자

## 나주교육청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인형극’ 진행

학급별 전문강사 투입…영상시청·교육 진행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은 2020년 7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대상으로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아동성폭력예방교육 인형극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성폭력예방 인형극은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생수 50명 미만인 학교는 강당에서 거리간격을 유지하며 참여형 관람 방식과 학생수 50명 이상인 학교

는 학급별 전문강사가 투입되어 영상시청·교육으로 두 가지 방법이 진행되고 있다.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은 또래 장난에 의한 신체 경계 침해가 어떻게 폭력으로 변하는지 에피소드를 통해 제시되었으며 서

로 경계를 존중하고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작은 일이라도 보호자와 함께 대화하기를 강조하며 신체적 경계를 침범당하는 위기에 있거나

성추행·성폭력 상황 대처방법에 대하여 상황극 연습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인형극 내용은 ▲ 1막 ‘나와 친구 사이의 좋은 선, 경계를 지켜줘요’ ▲ 2막 ‘내가 불편한 접촉은 거절해도 괜찮아요’ ▲ 3막 ‘우리 모두 안전을 위해 실천해요’로 구성되었으며 인형극을 보고 난 후 OX퀴즈판, 상황판 등 피드백을 통해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인형극을 보고 난 후 김00 학생은 “친구들과 장난할 때 함부로 신체 경계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역할연습을 해보니 불안감이 줄어들었어요.”라고 말했다.

